

# 순창군, 슬로라이프센터 착공

### '적성 슬로공동체권역 종합정비사업' 본격 시행... 주민 복지향상 등 기대

순창군이 농식품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추진중인 '적성 슬로공동체권역 종합정비사업'의 시행계획을 완료하고 지난 20일 슬로라이프센터 착공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간다.



순창군이 농식품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추진중인 '적성 슬로공동체권역 종합정비사업'의 시행계획을 완료하고 지난 20일 슬로라이프센터 착공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간다.

적성 슬로공동체권역 종합정비사업은 순창군이 농식품부 공모로 선정되어 2017년부터 추진한 사업으로 적성면 지내·모산·우계·농소 등 4개 마을을 대상으로 국비 25억원 등 총 37억여원이 투입된다.

주요 사업으로는 슬로라이프센터 신축, 마을회관 리모델링, 동네목수공방 조성, 연꽃생태공원 조성, 지역역량강화사업 등이 있다.

특히 이번엔 착공되는 슬로라이프센터는 적성면 고원리 189-1동 8개필지 일원 4,979㎡ 부지에 건축면적 568㎡ 규모로 강당, 다목적실, 식당, 다목적광장 등이 조성될 계획이다.

이는 주민복지증진과 지역공동체활동 등을 위한 복합적 공간을 필요로 하는 주민들의 수요를 충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인근의 섬진강미술관과 체계산

출렁다리, 섬진강자전거길 등 주변 관광지와 더불어 섬진강을 테마로 하는 순창 동부권의 거점 센터로 관광객의 발길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 임실군, 공무원 복지포인트로 임실사랑상품권 구매

### 경제 활성화 위해 1인당 20만원까지 구입토록 운영지침 개정

임실군이 공무원 복지포인트로 임실사랑상품권을 구매토록 하는 등 코로나19 경제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속속 내놓고 있다.

23일 군에 따르면 직원들의 복지포인트로 임실사랑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도록 운영지침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이번 달 내로 직원 1인당 20만원까지 구입토록 하고, 임실지역 내에서 소비하도록 유도한다.

또한 주유비 등 교통비와, 일반음식점, 소형마트 식료품 구매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복지포인트 사용범위를

확대했다.

개인별 잔여 포인트도 상반기내 조기집행을 독려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끌어낼 방침이다.

임실사랑상품권은 종전 8%에서 10%까지 특별할인되어 확대 운영이며, 현재 6억원 상당 판매된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특별한 기간을 6월까지 연장한 가운데 100억원 규모의 상품권을 추가 발행하여 유통할 계획이다.

상품권은 군내 금융기관 23개 지점을 통해 판매하고, 460여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SNS 이벤트도 전개, 추첨을 통해 임실사랑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군은 지난 11일부터 27일까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을 통해 소상공인 응원메시지 이벤트를 전개, 31일 추첨을 통해 총 200명에서 임실사랑상품권과 치즈핫도그를 경품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심민 군수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지역경제가 위축되고 있어 걱정"이라며 "어려운 시기를 함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모든 지원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 순창군, 만70세 이상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 시 상품권 지급

순창군이 23일 만70세 이상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을 자진반납하고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아 신청하면 20만원 상당의 순창사랑상품권 또는 교통카드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는 순창군이 고령운전자들의 교통사고를 예방하여 군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 보호를 목적으로 지난 13일 '순창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이 공포 됨에 따른 후속조치다.

이 같은 지원정책을 시행한 배경에는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한 운전자중 고령운전자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지난 한 해 관내에서 118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9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으며, 그 중 3명이 70세이상 고령운전자라는 사실이다.

군은 이번 지원정책을 통해 순창사랑상품권을 우선 지원하도록 유도해 고령운전자들의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 가지

효과를 거둘 전망이다.

대상자는 순창군 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2019년 11월 15일 기준 만70세 이상 고령운전자로, 경찰서에 운전면허증을 자진반납한 뒤 운전면허취소처분 결정통지서를 첨부하여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는 순창군 경제교통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순창군 경제교통과(063-650-1348)로 문의하면 된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시는 23일 월례회에서 집단시설 등에 의한 코로나19 집단감염 확산방지에 적극 대처를 당부했다.

# 코로나19 집단감염 확산방지 총력

### 이환주 남원시장, 집단시설 철저한 관리·운영중단 등 강력 권고

남원시가 집단시설 등에 의한 코로나19 집단감염 확산방지에 적극 대처하고 있다.

이환주 남원시장은 23일 월례회에서 정부가 다음달 4월5일까지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종교시설과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 등에 대해 15일간 운영을 중단해 줄 것을 강력히 권고함에 따라, 각 읍면동장에게 "집단시설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집단감염을 최대한 막아내자"고 강력히 주문하며, "정부가 마지막으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한 만큼 15일 동안은 남원에서 집단감염이 가장 우려되는 종교시설 등의 운영중단을 강력히 권고하는 등으로 집단감염경로를 최대한 차단하자"

고 강조했다.

특히, 이 시장은 "23개 읍면동장들에게 지역소재 종교시설을 직접 방문해 운영중단을 권고하는 한편, 준수사항을 반드시 안내해 달라"고 주문하고, 각종 다중이용시설 운영 실태에 대한 면밀한 파악과 사회적 거리두기의 적극적인 동참 홍보도 강조했다.

한편 이 시장은 "현재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이 휴관중이지만, 필수적으로 운영해야 되는 관내에 있는 노인요양병원(4개소), 노인의료복지시설(12개소), 재가노인복지시설(10개소) 등에 대해서는 방역을 더욱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 순창군,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지원

순창군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린이 집, 학교 등의 개학이 연기되면서 양육에 대한 시름이 깊어지는 학부모들을 위해 발벗고 나섰다.

군은 지난 17일 정부 방침에 따라 휴원, 휴교 등에 따른 양육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를 확대 지원한다고 밝혔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만 3개월 이상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전문 양육교육을 이수한 아이돌보미가 가정으로 직접 방문해 1:1로 아동을 안전하게 돌봐주는 사업이다.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등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 중 가족돌봄 휴가, 시설 긴급보육 등을 이용하기 어려운 가정에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부모가 아이를 돌볼 수 있는 가정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조치는 지난 17일 정부가 발표한 개학 연기조치에 따른 후속조치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한 부모는 기존 대비 최소 5%에서 최대 40%까지 비용부담을 덜게 됐다.

군은 아이돌보미 23명에게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을 지급하며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에도 노력하고 있다. 또한 돌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순창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아이돌보미 교사의 활동 내용과 이용 가정의 현황 등을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서비스 연계 전 발열체크를 실시하는 등 안전한 서비스 제공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센터 입구에 소독제를 비치하고 센터 내·외부의 정기적인 방역 및 방역 확인자 발생시 해당 확진자의 이동경로를 확인 후 동일시간 이동경로가 중복되는 경우 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망을 구축해 코로나19 차단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황주 순창군수는 "가정에서 자녀를 안전하게 맡길 수 있도록 아이돌보미 선생님에 대한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면서 "지속적으로 사전감염 차단, 수시 모니터링 강화 등 안전한 돌봄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 지역 소식통

### 남원시보건소, 코로나19 관련 종사자 심리지원 실시

남원시보건소(소장 이순례)는 코로나19 감염 대응 업무종사 의료진과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소진예방 심리지원 서비스를 운영했다.

이번 지원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잇따른 휴일 비상근무 및 업무추진으로 체력이 소진되었을 의료진과 공무원들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맥파분석기를 활용한 혈관건강도와 직무스트레스 측정 및 우울증 척도 등 심리검사를 진행하고, 10가지 감정일일 분석을 통해 현대인들이 겪는 다양한 감정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맞춤형 오일제작 등 항기요법 프로그램도 진행했다. 또한 업무스트레스 등으로 혼자 힘겨워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정신건강전문가의 도움 요청을 권장했다.

이순례 남원시 보건소장은 "최전방에서 고군분투하는 의료진 및 공무원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조치를 더욱 강화하는 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 남원 추어탕 브랜드 강화 위한 지원 나서

남원시농업기술센터(소장 나상우)는 지역 고유 전통음식인 추어탕 브랜드 강화를 위해 관내 추어탕 업소를 대상으로 지원에 나섰다.

남원 추어탕은 제조과정에서 남원만의 특별한 제조방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통은 추어탕 제조시 통째로 갈아 만들지만 남원추어탕은 살과 뼈를 분리해 만들기 때문에 차별화된 깊은 맛을 얻을 수 있었다.

삶은 미꾸리의 뼈와 살을 분리하는 작업은 모두 수작업으로 진행되는 고된 작업으로, 시에서는 남원추어탕의 차별성을 보존하고 업소들이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도록 자동 골육분리기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지원대상으로 현재 10개 판매업소가 선정되었으며, 4월부터 골육분리기를 본격 지원할 계획으로 선정기준은 추어탕리 전문업소이면서 남원산 미꾸리 매입의지가 높은 업소가 우선 대상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전주매일 금연캠페인

